



## 오늘의 말씀 - 수 (출 4:24-31)

24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5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2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28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29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 본문 이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모세를 만나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 적용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

습니다. 모세가 숙소에서 강도를 만났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할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모세를 만나 첫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서야 할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둘째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애굽으로 먼 여정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고 떠났다가 혹 잘못 돼서 열이라도 나고,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앞섰을 것입니다. 갓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앞세우지 못하고, 아내를 위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의 길을 불순종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셔서 모세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잘못되면 만사 허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중심을 세워 주시기 위함이었습시다. 하나님은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과 동시에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축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다시 모인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 기도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시작도 과정도 바르게 하기 위해 늘 내 중심을 살피게 하옵소서.

내 중심을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잘 순응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내일 말씀: 출 5:1-14)